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9명 추락사 | 세계적인 등반가 김창호 대장, 산에 잠들다

“히말라야 남벽 새 루트 개척이 꿈이었는데…”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무산소 등정
7년 10개월 6일 걸려…세계 최단기록
작년 네팔 최고봉 힘중 등반 황금피켈상
다람수라·팝수라 신 루트 개척 하기도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여”. 네팔 히말라야 등반 중 사고로 사망한 원정대의 마지막 모습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임일진 감독, 김창호 대장, 이재훈 대원, 유영직 대원(왼쪽부터).
사진출처 | 카트만두포스트 캡처

“히말라야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될 겁니다”.

인터넷 세상이 온통 검은 애도의 물결로 굽이쳤다. 네팔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을 등반하던 중 김창호(49) 대장을 포함한 산악 원정대 5명이 12일(현지시간)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져왔기 때문이다.

김 대장이 이끌던 총 9명의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는 이날 베이스캠프에 머물다 강풍에 휩쓸려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 한국인 5명은 김창호 대장과 유영직(51·장비담당), 이재훈(24·식량 및 의료담당), 임일진(49·다큐멘터리 영화감독) 그리고 원정대를 격려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였다. 네팔인 가이드 4명도 함께 변을 당했다.

14일 외교부는 대형 헬리콥터와 전문 수습팀이 사고지역에 도착해 시신수습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호 대장은 그저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정도로 소개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등반업적은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무산소등정과 등로주의이다. 그는 “내가 가진 힘만으로 산에 오르고 싶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세계를 통틀어 몇 안 되는 등반가 중 한 명이었다.

김창호 대장은 경북 예천 출신이다. 영주중앙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왔다. 서울시립대 산악부에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히말라야 첫 등반은 1993년 그레이트 트랑고타워(6284m)로 기록돼 있다.

‘김창호’라는 이름은 세계 산악계에서 ‘무산소 등정’과 치환됐다.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이상 14좌를 무산소로 오른 사람이다. 7년 10개월 6일이 걸렸고, 이는 아직까지 세계 최단기록이다. 무산소 등정은 8400m 이상의 고산을 외부 산소공급없이 오르는 등반이다. 8000m에서의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장은 마칼루(8463m), 로체(8516m) 등 악마의 얼굴을 가진 험봉들을 산소통 없이 오롯이 두 폐의 힘만으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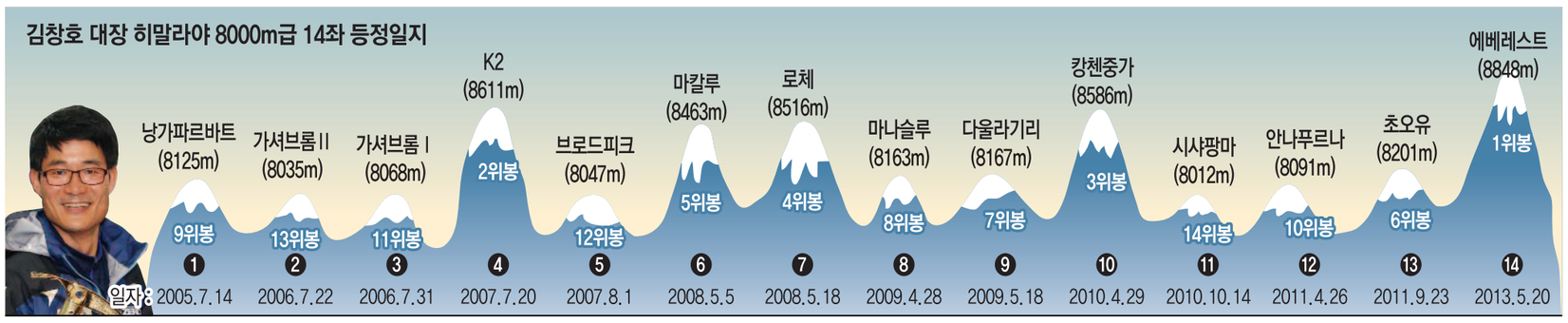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네팔의 미등정봉 중 가장 높은 힘중을 세계 최초로 등반해 황금피켈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클라이밍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권위있는 상이다. 김창호 대장은 시상식에서 “산에 가지 않는 산악인은 의미가 없다”라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과연 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무산소 등정의 도전을 이룬 김 대장은 ‘등정’보다는 등반의 과정을 중시하는 ‘등로’로 방향키를 돌렸다. 남이 간 길을 되밟아 올라 정상에 오르는 대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2017 코리안웨이 인도 원정대’가 대표적이다. 이 원정대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수라(6446m)와 팝수라(6451m)의 신규 루트를 뚫는데 성공했다. 변을 당한 이번 등반은 네팔 구르자히말의 남벽 직등 신루트 개척이 목표였다.

김창호 대장은 평소 “산 정상에 올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집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성공한 등반이라 할 수 있다”며 ‘집에서 집으로’를 모토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등반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제 히말라야 계곡의 눈 속에 묻혔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진화하는 벤투호 ‘3가지 비결’

▶1면에서 이어집니다

두 가지 패턴은 모두 훈련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한 사항이었다. 수비형 미드필더 1명에게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긴 것은 중앙 수비수들의 빌드-업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투톱으로 나올 우루과이 공격수들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함이었다. 2명이 압박할 때는 3명이 빌드-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기 마련이다. 골킥 패턴은 어차피 공격수들이 긴 롱킥을 볼 소유로 이어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좀 더 공간이 넓고 상대적으로 장신이 적은 미드필드에서 경합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작전은 대부분 성공을 거뒀다. 기성용은 “2가지 패턴 모두 파주NFC에서 소집 이후 훈련하며 준비한 약속된 플레이였다”라고 말했다.

●철저한 분석으로 내용과 결과 잡기

벤투 감독은 우루과이전 전반전 도중 벤치에 앉아있는 코치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벤치로 가서 담당 코치들과 얘기를 했다. 벤투 감독은 이를 통해 자신이 본 상황이 맞는지,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 코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보여줄 영상 편집 장면을 선택한다. 그런 뒤 라커룸으로 돌아가 코칭스태프가 결정한 영상을 선수들에게 보여주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나 선수들이 잘했던 부분에 대해 짧게 피드백을 준다.

전반보다 더 나은 내용의 후반을 위해 벤투호 코칭스태프는 전반을 매우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벤투 감독의 움직임은 후반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이 FIFA랭킹 우루과이를 상대로 후반에만 2골을 넣어 승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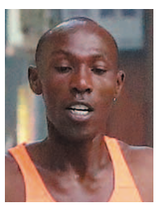
1만여명 러닝맨, 서울의 가을을 수놓다

2018 서울달리기대회

비초청 선수 카란자 28분58초
골드러시 오픈 국제 깜짝 우승
10~30대 68%…젊음의 열기

14일 열린 2018서울달리기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이 힘차게 서울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yohan@donga.com

14일 새벽 서울시청 광장은 오전 8시에 출발 총성이 울리는 2018서울달리기대회(서울시·동아일보 공동 주최)에 참가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골드러시 1위 카란자

올해로 16회를 맞은 서울달리기대회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골인하는 10km 코스(오픈국제 및 마스터스)와 뚝섬한강공원에서 레이스를 마치는 하프코스로 진행됐는데, 무려 1만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2015년 신설 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골드러시(10km 오픈 국제)에선 올해도 2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엘리트 선수들과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매년 초청선수가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비초청 선수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28분58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키마니 카란자(26·케냐)가 그 주인공이다. 전국마라톤협회에서 발굴한 선수로 지난 여름부터 충북 보은군 소속 국내 엘리트 선수들과 대전에서 함께 훈련 중이다. 카란자는 “한국에 처음 와봤는데 코스 풍경이 정말 좋았다”고 했다.

골드러시 국내 1위(전체 10위·36분7초)를 기록한 김성진씨(33·거제마라톤클럽)는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고 싶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빨라서 혼자 뛰었다”고 말했다. 남자 하프코스에선 오누마 다쿠미씨(일본)가 1시간12분3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선 이지윤씨가 1시간25분36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10km 종목에선 남자부 남평수씨(33분13초)와 여자부 박민씨(39분13초)가 우승자가 됐다.

서울달리기대회는 참가자의 68%가 10~30대인 만큼 에너지가 넘쳤다. 기록경쟁보다는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특히 10km 종목 참가자들은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샷을 남겼고 피니시라인에서 울려 퍼지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완주를 축하했다. 최고령 참가자였던 민평식씨(82)는 10km 코스를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빠른 기록(59분5초)으로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